

梅月堂의 詩世界

閔 丙 秀

(人文大 國文科)

1. 序 言

1) 研究史의 反省

지금까지 梅月堂의 研究에 바쳐진 우리 學界의 研究 成果를 一瞥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方面으로 集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傳奇集 金鰲新話에 대한 小說史의 研究가 그 中心 課題로 浮刻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그 다음으로는 梅月堂集에 收錄된 雜著 및 論說을 金鰲新話와 對比 研究한 思想 論議가 이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崔南善에 의하여 金鰲新話의 行方이 確認 紹介된 이래, 한때 國內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 보기 어렵게 되었던 金鰲新話가 다시 日本으로부터 우리나라에 逆輸入되었고¹⁾ 이에 따라 이후 우리 學界에서 보여준 이에 대한 關心은 金鰲新話의 小說史의 位置를 定立하는데 刮目할 만한 成果를 이룩하였다. 梅月堂에 대한 傳記的 研究를 비롯하여 金鰲新話의 形成過程을 追跡하는 文獻學的 比較研究와, 그의 作品 文畵을 檢證하는 實證的인 解釋學的 研究 등 初期 段階의 研究에 바쳐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網羅되면서 金鰲新話에 대한 研究는 一時 그 盛況을 이룬 감이 없지 않았다.²⁾ 특히 作品의 外在的 要素를 重視하는 思想 研究는 一見 매우 重要한 의미를 가지는 듯하여 持續的으로 研究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면 悲劇의 일수도 있는 浪漫과 神奇로 가득찬 傳奇集 金鰲新話에 대한 文獻學的 解釋學的 研究가 到達할 수 있는 限界는 처음부터 豫料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作品 밖에 提示된 社會 思想·哲學思想의 收拾으로 周邊 探索만을 일삼은 一部の 思想 論議들은 그것이 本格的인 文學研究의 作業에까지 이르기 힘든 것은 自明하다. 더우기 虛構와 事實의 距離를 考慮하지 않은 文學思想의 研究와 같은 것은 文學理論의 不在라는 스스로의 限界를 사실로 드러

1) 崔南善, 金鰲新話解題(啓明 19호, 1927)

2) 金鰲新話에 대한 重要 研究 成果를 時代順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鄭炳昱, 金時習研究(서울大論文集, 1958)

〃, 金時習의 生涯와 思想(國文學散藁, pp. 222~237, 新丘文化社, 1959)

朴晨義, 比較文學의 見地에서 본 金鰲新話와 剪燈新話(高大文理論集 3집).

鄭鈺東, 梅月堂 金時習研究(新雅社, 1961).

拙 稿, 韓國小說發達史上, 韓國文化史大系 V pp. 1004~1018(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7)

李石來, 金鰲新話의 展開의 考察, 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pp. 447~457(乙酉文化社, 1968).

李在秀, 韓國小說研究(宣明文化社, 1969)

林榮澤, 現實主義의 世界觀과 金鰲新話(國文學研究 13집).

李靈九, 梅月堂의 愛民意識과 詩의 性格(韓國漢文學研究 第1집, 1975)

낸 그 밖의 의미는 賦與될 수 없다. 虛構의 세계인 金鰲新話와, 社會的 實踐的 倫理를 강조한 論說의 文脈을 等次元에서 把握한 思想 論議가 文學論에 속하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一部 成果 중에는 梅月堂의 詩作에 대한 接近을 企圖한 것이 없지 않으나 이 또한 本格的인 作品論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例의 愛民意識이나 現實主義를 檢證하는데서 그치고 있어³⁾, 前記한 思想論議의 延長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梅月堂의 詩作이 提示한 문제들은 그것이 思想 研究의 資料史의 구실을 하는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梅月堂의 研究에 관한 限, 우리는 일단 傳奇集 金鰲新話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限界를 肯定的으로 是認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金鰲新話 바깥에 散在해 있는 雜著와 論說의 文脈을, 虛構的인 傳奇의 세계인 金鰲新話와 同一線上에서 把握하려 한 思想 論議가 결코 文學論의 할 일이 아님을 確認하는 作業이 先行되어야 할 것도 아울러 알아야 할 것이다. 本稿의 意圖도 곧 이러한 從來의 梅月堂 研究에서 露出된 문제들을 克服하려는 한 試圖로서 梅月堂의 詩作에 대한 探索을 피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企圖를 통하여 비로소 梅月堂의 詩篇이 그의 全人的 研究에 있어 일찌기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惠澤 받은 資料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梅月堂集 23卷 중에서 15卷이 詩集이며 여기에 수록된 詩篇만 하더라도 무려 2,200餘首에 達하고 있다. 梅月堂의 事蹟을 傳하고 있는 現存 資料들을 綜合해 보면, 梅月堂에게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詩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그의 詩文集을 編成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10年을 걸러 겨우 遺篇 3卷을 收拾하였다고 하니⁵⁾, 이는 이러한 事情을 說明해 주는 端的인 證左기 될 것이다.

文以貫道나 文以載道와 같은 道學文學觀이 支配하던 당시에 있어서, 詩라고 하는 것은 한낱 선비 사회의 敎養物이거나 餘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梅月堂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이상으로 深刻하고 悲劇的인 것이었다. 그의 타고 난 詩才와, 放浪으로 始終한 一生의 歷程이 서로 만나면서 이룩한 그의 詩世界는 어찌면 그의 文學과 人生과 세계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詩를 위해 詩를 하는 浪費를 일삼으면서도 詩 말고는 디시 할 일이 없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詩의 意味는, 오직 詩를 하게 하는 衝擊과 詩를 하는 行爲 그것이 眞부였으며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考慮도 하지 않았거니와 期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逆說의으로 보면, 이는 “藝術을 위한 藝術”을 하는 行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否定的인 社會現實을 맑고 깨끗하게 反映한 藝術的 昇華現象으로 說明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梅月堂과 그의 詩世界를 一義의으로 解明하는 方法에 의거하

3) 李雲九, 上揭書

4) 李珥, 金時習傳

5) 李紆, 梅月堂集序

지 아니하고서는 梅月堂의 全人的 研究는 空疎를 免할 수 없을 것이다. 梅月堂의 研究에 바쳐진 그 많은 業績에도 불구하고 梅月堂의 眞正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所以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는 지금까지 硬直할 정도로 傳奇 研究에만 執着해 온 從來의 研究 方向에서 빠져 나와 그의 詩世界를 檢證하는 冒險을 企圖하게 된 것이며, 그 詩作의 詩史的 의미를 考慮하여 극히 制限된 範圍에서나마 批評的 接近을 試圖하고자 하는 것이다.

2) 研究課題의 摸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梅月堂에 대한 研究가 傳奇集 金鰲新話에 集中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研究 成果로 얻어 낸 結論은 대체로 그의 儒佛思想의 導出과 같은 思想 論議에서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金鰲新話에 대한 研究가 思想 論議로 歸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傳奇集 金鰲新話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限界를 사실로 證明한 것이며, 특히 儒佛 論議와 같은 思想的 研究는 이미 先人들이 指摘한 “心儒跡佛”이나 “行儒而迹佛”을 確認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思想 論議에서 提示한 “現實主義思想” 即 具體的으로 “人本主義” 또는 “民本主義”와 같은 것은 儒教理念으로 武裝된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普遍的인 基本 思想의 端的인 表出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또한 당시 社會의 實踐的인 儒家 理念의 典型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作品 속에 그대로 露出되고 있다면 梅月堂의 作家의 評價는 이상 더 나아갈 것이 없을 것이다. 더우기 梅月堂의 現實主義思想을 感傷的으로 解釋한 “主氣論”의 提示는 그 根底에서부터 檢討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⁶⁾ 主氣論이나 主理論과 같은 것은 性理學의 核心인 本體論에 속하는 것인데, 아직 性理學의 理論의 基盤이 薄弱한 당시에 있어 理氣論의 基本的인 講論도 없이 主氣論에까지 飛躍할 수 있는 氣理論의 開陳이 사실로 있었다면, 이는 우리나라 儒學史上 特記할 사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梅月堂集에 收錄된 論說의 性格은 아직도 實踐的인 基本儒學의 範疇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으며, 특히 20代以後 放浪으로 始終한 生涯의 歷程으로 보아 그가 道學 文字에 執着할 수 있는 精神的인 安定 基調도 마련되기 어려웠다고 하겠다. 그가 性理群書를 接目한 사실은 오히려 詩集속에 나타나고 있는데⁷⁾ 이것도 그의 晩年の 일인 것 같다.

이상에서 본 바로서, 지금까지 梅月堂에 대한 思想的 研究는 그것이 梅月堂의 文學世界에 接近하기 위한 周邊 探索에서 그치고 있을 뿐, 本格的인 文學論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自明하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梅月堂의 文學世界에 대한 本格的인 接近의 한 試圖로서 먼저 그의 詩世界를 探索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詩的 接近의 方法에 있어서도 從來의

6) 鄭炳昱, 매월당집해제, 국역매월당집 I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및 林煥澤 前掲書

7) 梅月堂集 卷十三 ‘關東日錄’에 得性理群書를 비롯하여, 實理, 一氣, 主敬, 存心 등의 詩篇이 있으나 理氣論과 같은 本體論에까지 深化되고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思想 檢證과 같은 外的 研究의 桎梏에서 脫皮하여, 梅月堂의 詩作에서 얻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重點的으로 檢討하게 될 것이다. 첫째, 그가 詩를 하지 않고서는 어쩔수 없었던 詩的 衝擊을 檢證해 보는 詩的 動機와 둘째, 現實世界에서는 자기의 精神的 價値(spiritual value)를 實現할 수 없었기 때문에 詩를 통하여 自己 實現(self realization)을 企圖한 詩的 表現의 樣相을 追跡할 것이며, (高度한 藝術性的의 문제도 여기서 追求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여기서는, 浪漫的인 傳奇的 세계를 선택하여 詠情詩를 實現한 詩小說의 세계가 檢討될 것이다. 셋째, 漢詩의 詩語에서 가장 常識的인 表現으로 나타날 수 있는 思惟와 感覺樣式을 살피고 넷째, 극히 制限的인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古典 詩論의 批評樣相을 基礎로 하여 詩 鑑賞의 試驗을 企圖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詩的 表現의 諸樣相

1) 詩的 動機

우리나라의 詩人中에서 梅月堂처럼 自身에 관한 모든 것을 詩를 통하여 解明한 詩人은 아마 그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詩의 文脈속에서 自身の 精神的 價値를 實現할 수 있었던 그는, 그로 하여금 詩를 쓰게 한 詩的 衝擊과 詩를 쓸 수밖에 없었던 詩的 動機도 모두 詩로써 읊었다. 그러므로 本稿의 作業도 그가 보여준 詩作의 現實文脈을 통하여 그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어린 時節 헛되이 功名에 기대를 걸었다가 모래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거북이 신세가 된 自身の 모습을 똑바로 바라 본 梅月堂 金時習은, 詩名 같은 것 얻어보았지 소용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詩를 위하여 詩를 쓰는 浪費를 일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젊었을 때 功名의 꿈 부질없이 기약했다가	早歲功名痕自期
이제 와서 이몸은 모래밭에 거북이라	此身端合曳沙龜
세상 인심 얇기가 매미 날개 같은데	世情薄似螞蟻翅
한가한 꿈맛은 瓊玉 같이 덜구나	閑夢甜於瓊玉飴
하늘 하늘 맑은 연기 돌길에 서러 있고	長農淡煙凝石逕
굽디 고운 달빛은 솔가지에 떠 있구나	娟娟寒月上松枝
詩人이란 이름 얻어 어디에 쓸 것인가	詩名老大將何用
남쪽 창 작은 벽에 詩니 잔뜩 써붙인디	題遍南窓小壁時 ⁸⁾

고 했다. 그러나 梅月堂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事情이 있었다. 일과 뜻이 서

8) 卷一, 「漫成 二首」 第二(以下 卷數만 밝힐 것임)

로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지난 날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그의 才名도 이제는 믿을 것이 못되었던 것이다.

이 몸과 세상 일이 이토록 어긋나니	身世相違甚
才名 또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오	才名亦自誣 ⁹⁾

이 어처구니 없는 事實 앞에서, 그가 스스로 克服 破壞하기에는 現實은 너무도 두꺼운 障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精神의 價値를 實現할 수 있는 方便으로 選擇한 것이 詩의 世界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詩로써 實現할 수 있었기에, 그는 詩를 쓰게 된 詩的 動機도 역시 詩로써 읊었다.

마음과 세상 일이 서로 어그러지니	心與事相反
詩를 하지 않고서는 즐길 일이 없다오	除詩無以娛
한번 취한 기분도 순식간의 일	醉鄉如瞬息
잠 맛도 다만 잠깐 사일세	睡味只須臾
송곳 끝을 다투는 장사치 이가 갈리고	切齒爭錐賈
말이나 먹일 오랑캐 한심하기만 하네	寒心牧馬胡
인연 없어 밝은 천거에 몸 바치지 못하니	無因獻明薦
눈물을 닦으며 아! 탄식이나 할밖에	拭淚永嗚呼 ¹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地上에서의 모든 것을 拋棄하고 詩로써 즐길 거리를 삼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곧 그의 詩的 動機가 된 것이다. 詩의 衝擊 때문에 詩를 쓰게 된 아이러니를 演出하게 되었으며 詩를 위하여 詩를 쓰는 浪費를 하게 된 것이다. “마음과 세상 일이 서로 어그러지니”에서 “마음”은 原初의 자기 모습이며 “세상 일”이란 梅月堂으로 하여금 窮地에까지 몰고 간 그의 不遇한 家庭 環境과 날로 醜惡해 가는 政治風土이며 “어그러진 것”은 바로 그 破綻의 宣言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超克하기 위하여 “詩를 하지 않고서는 즐길 일이 없다”고 하였다. 原初의 梅月堂이, 屈折된 自己 모습을 克服 止揚하기 위하여 詩의 世界로 飛翔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詩를 하는 行爲 그 자체에 의미를 賦與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流出되는 모든 情緒가 詩로써 表現할 價値가 있는지 與否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가는 곳마다 詩를 뿌리고서도 스스로 이를 收拾하는 문제와 같은 것을 考慮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詩의 그의 世界가 함께 풍성한 그런 상황에서는 自己를 包含한 모든 對象을 戲畫化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은 것은 오히려 自然한 것일지도 모른다.

십년을 두고 泉石에서 心肝을 씻었어도	十年泉石洗心肝
몸과 세상 일이 도무지 꿈과 같으니	身世都如醉夢間

9) 卷十三, 「身世」

10) 卷十四, 「叙悶」第一

단맛 쓴맛 다하지 못해 바다 밖에도 가 보았고	未盡甘苦窮海外
공연히 장난 글을 세상에 마주 뿌렸네	空留戲墨滿人間
산 언덕에 숨어 살기 전생부터 소원인데	山阿真隱前生願
구름 끝에 신선 놀음 이 날의 기쁨이라	雲水仙遊此日歡
어떻게 서까래 같은 王氏 붓을 얻어서	安得如椽王氏筆
豪氣 있게 고린 선비 눌러 볼거나	一揮豪氣壓儒酸 ¹¹⁾

자신과 세상 그 어느것도 自己편이 되어 주지 않을 때, 그가 選擇한 또 다른 現實對決의 場所는 自然이었다. 이러한 事情은 그가 關西地方을 周流하고 나서 그때의 처지를 回顧한 다음 글에서도 確認된다.¹²⁾

余自少跌宕 不喜名利 不顧生業 唯以清貧守志爲懷 素欲放浪山水 遇景吟詠 · ·

소시적부터 跌宕하여 세상의 名利나 生業과 같은 것은 돌보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山水로 放浪하면서 詩나 읊었다고 迹懷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는 跌宕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세상을 한갓 살아가는 것만으로 滿足해 하는 庸劣한 俗物들의 故蕩되는 同日에 論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背信 당한 鬼才 金時習의 屈折된 모습이다. 세상을 自欺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것과도 통하는 一面이 있다. 一切의 對象에 대한 本能的인 欲求를 포기한 狀態다. 現實의 壁이 너무 두꺼워기 때문에 그는 世俗的인 名利나 生業을 내던지고 虛空으로 飛翔하거나 地下로 숨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選擇한 詩의 세계에 있어서는 現實을 凝視하는 날카로운 炯眼을 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現實感覺 때문에 그는 하나의 세계를 叙述하였을 뿐 새로운 세계를 探索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했다

나에게는 몇 마지기 밭이 있는데	我有數畝田
높았다 낮았다 바위 벼랑에 있네	高下依巖磻
콩 심고서 우거진 풀 매지 않았더니	種豆蕪不治
글만 무성하고 콩 싹은 드무네	草盛豆苗稀
하늘을 우러러 노래 부르며	仰天歌嗚鳴
조용히 옛 사람 생각해 보네	靜言思古人
인생은 오로지 즐겁게 보낼 것인데	人生行樂耳
부귀가 이 몸을 괴롭게 구네	富貴勞我身
이 내 몸 또다시 생각하지 말자	我身勿復慮
잘 되고 못되는 건 하늘에 달린지라	否泰在蒼旻
세상 사람 모두들 홀뜰고 깃잡으니	衆人正嗚嗚
세상과 이 몸이 서로 모순 될밖에	世我相矛盾
조용히 陶淵明의 詩나 화답하다가	細和淵明詩
造化翁이 하는 대로 無로 돌아 가리라.	乘化以歸盡 ¹³⁾

11) 卷一, 「十年」

12) 卷九, 宕遊關西錄後志

13) 卷二, 「草盛豆苗稀」, 陶淵明의 詩「歸園田居」에서 따온 것

발이나 갈며 조용히 살아가려던 原初의 모습이 중간에 세상 일이 끼어 들면서 屈折되고 있는 場面이다. 인생을 노래하려던 당초의 立意가 氣弱하여 達意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함으로써 詩로서 成功하지 못한 스스로의 弱點을 드러내고 있다.

좋은 詩를 쓴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쓴 詩가 훌륭한 詩이냐는 물음에 應答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疎忽히 하기 쉬운 詩語의 視覺的 聽覺的 效果와 같은 것들도 또한 만만치 않게 詩의 評價 基準으로 重視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좋은 詩의 生産을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런데 文言으로 中國詩를 體驗한 우리나라 詩人들은 비록 中國詩의 傳統을 그대로 배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詩的 表現의 工具로서의 言語에 대해서는 疏遠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詩는 音樂的이기 보다는 概念的이다. 李籽가 梅月堂의 詩를 評하여¹⁴⁾

其爲詩告蕩 朝夕烟雲 驅風冒雨 怒嘖喜笑 皆成句語 不規規於聲律 而典章不紊 不刺刺於詞華 而大璞
 依麗

라 하였는데, 이 말은 成句만으로는 詩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梅月堂의 詩에 있어서는, 아예 聲律이나 修飾과 같은 것은 힘들이지 아니하고서도 詩作이 可能할 정도로 그의 詩才가 뛰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梅月堂의 경우, 意識적으로 그러한 것을 考慮하지 않은 嫌이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 詩人들이 甘受해야만 했던 共通的인 負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樂府詩나 詞曲에서 成功하지 못한 所以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韓國詩에 관한 限 이러한 문제는 일단 留保하고 넘어가는 것이 叙述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中國의 批評史에도, 詩에 대한 見解의 차이 때문에 여러 流派들이 있어 왔다. 道學派, 個性派, 技巧派, 直觀派 등으로 불리우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도 각각 한계가 있었다. 劉若愚는 “偉大한 詩”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¹⁵⁾

위대한 詩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經驗하게 하거나, 낡은 세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經驗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詩는 眞實의 表現일 뿐 아니라 그것의 擴充이기도 하다 同時에 위대한 詩는 새로운 經驗의 세계를 創造하기 위하여 새로운 表現, 感覺과 音律의 새로운 結合, 單語와 心象과, 象徴과 聯想의 새로운 模型 등과 아울러 言語 驅使에 아직껏 보지 못한 新解한 方法을 반드시 걸들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는 물론 그 發想이 西歐의 文學理論에서 비롯하고 있어 이를 東洋의 古典 文學理論의 體系에서 收容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며 또 여기서 詳論할 성질의 것도 되지 못한다. 다만, 그 論旨로 보아 詩的 創造 活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는

14) 梅月堂集序文

15) 劉若愚, 中國詩學(李章佑譯) pp 129~130.

틀림 없는 듯하다. 이에 따른다면 梅月堂의 詩는 처음부터 말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本稿에서 劉氏의 所論에 따라 梅月堂의 詩를 試驗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梅月堂이 그의 詩作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의 探索을 可能하게 하였는지 與否를 檢證해 보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의 探索”이라고 하는 것을 東洋의 古典 詩論에서 본다면, 그것은 곧 詩에 있어서 “達意”의 문제를 論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解釋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梅月堂의 詩作中에 達意의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작품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立意가 이루어진 듯한 詩作들에 있어서도 대개는 그 中途에서 屈折된 自己 모습을 作意없이 露出시킴으로써 마치듯 이룩한 立意가 達意의 直前에서 破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는 梅月堂의 詩世界를 探索하는데 重要的 課題로 浮刻될 수 있기에 일단 의미는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梅月堂은 個性主義者들의 主張과 같이¹⁶⁾, 詩를 한갓 自己 表現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으며 특히 그에게 있어서는 詩를 쓰게 하는 衝擊이 곧 詩리고 생각되었던 것 같다.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詩를 쓰게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詩를 쓰는 行爲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詩를 하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서 流出되는 모든 情緒가 詩로서 表現할 價値가 있는지 與否도 考慮해 본 것 같지 않다. 그는 世間の 風月雲雨・山林泉石・宮室・衣食・花果・鳥獸, 人事의 是非得失, 富貴貧賤・死生疾病・喜怒哀樂, 심지어 性命理氣・陰陽幽顯에 다르기까지 有形 無形의 가리켜 말할 수 있는 것은 읊조리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詩概念은 오히려 비좁아서 그의 詩가 다만 情緒와 個性의 表現에 局限되고 있다는 批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感情의 流露를 自然 發生的으로 表白하지만 하였을 뿐 그 緊張이 持續되지 않았기 때문에 自身이 對答할 餘地조차 남기지 않았다.

잘막한 抒情詩나 思惟詩에 뛰어난 반면, 叙事詩에 익한 것이 東洋에 있어서의 詩의 風土이고 보면, 詩로서 抒情을 노래한 梅月堂이 到達할 수 있는 創造的 世界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 限界가 豫見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製作한 金鰲新話도 이러한 詩世界의 擴散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詩로써 이야기거리를 그만큼 單純化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東洋思想의 根幹을 의루고 있는 儒敎와 佛敎・道敎의 모든 敎理들은 처음부터 紛爭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不必要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들도 그의 文學世界를 規制하는데 無關하지 않았을 것이다. 梅月堂은 紛爭을 싫어했다. 그래서 흔히 抒情詩에서 企圖하는 思想的 葛藤 같은 것조차도 深化시키지 못했다. 그는 너무도 쉽게 破綻을 宣言하곤 했기 때문에 그의 緊張은 새로운 세계를 넓고 깊게 探索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許筠의 論評에 따르면,

16) 同上書, p. 121 參照

金悅卿高節卓爾 不可尙己 其詩文 俱超邁 以其遊戲 不用意得之 故強弩之末 每雜蔓 語張打油 可厭也¹⁷⁾

라 하여 힘들이지 않고 詩를 하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는 매우 난잡하고 俚俗의 말이 많다고 하였다. 正鶴을 지른 評이라 하겠다. 詩가 다른 經驗世界를 探索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것 自己 表現에 그쳐서는 안되며 거기에 觀照가 隨伴되어야 한다. 그리고 文學的인 技巧도 아울러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許筠의 評은 바로 이런 點을 看破한 것이다. 그런데 梅月堂 자신이 그의 詩作에서 提示한 作詩 感覺은

但看其妙處(다만 그 묘한 곳만 볼 뿐)
莫問有聲聯(聲聯 같은 것 묻지를 말 것이다)¹⁸⁾

我願得其妙(내가 원하는 것은 그 妙理를 얻는 것)
不勞空嘍咻(그래서 힘들이지 아니하고 노래만 부르네)¹⁹⁾

와 같은 것에 端的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가 詩에서 追求한 理想은 오히려 奧妙한 入神에 있었던 것 같다. 聲韻과 같은 것은 처음서부터 그를 수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그의 理想과 現實은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는 評이 될 것이다. 물론 그의 詩에 있어서 이리힌 理想을 사실로 成功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가 製作한 詩의 의미는, “詩를 하는 行爲”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詩 한 首를 아래에 격어 보기로 한다.

저사란 본래 閑雅한 것	處士本閑雅
그래서 소시부터 大道를 좋아했지	早歲好大道
그러나 세상 일은 어긋나기 시작	志與時事乖
속세에서 발자취 끊고 밀었지요	紅塵跡如掃
어려서부터 이름 난 산속에 놀면서	少小遊名山
어리석은 俗人과는 사귀지 않았지	曠俗不交好
晩年에는 폭포가에 자리를 잡아	晩居瀑布傍
淸溪의 늙은이 되려 했었네	欲作淸溪老
세상 사람 어떻게 이 뜻을 알겠나	世人那得知
대개는 말하기를 신세 망쳤다 하겠지	尋常稱潦倒
處士도 또한 셈내지 아니하고	處士亦不猜
바람 불고 꽃 필 때마다 뇌쇄되기 일수라네	每被風化惱
매가 오면 후시 나울지도 모르지만	隱顯或無時
仙境으로 떠나가기 기약한 몸이라오	期往蓬萊島 ²⁰⁾

17) 許筠, 許筠全集(大東文化研究院 影印本) 惺叟詩話

18) 卷四, 「學詩」

19) 卷一, 「戲甚走題」

20) 卷一, 「自貽」

모처럼 閑意를 일으켰다가는 일그러진 自己 모습을 지나치게 露出시킴으로써 長篇을 驅使할 기운은 이미 盡하고 끝내 自己 속으로 沈潛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詩作中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農民들의 生活相을 詩化한 社會批評의인 詩作도 여러 篇이 있다. 「嗚呼歌」「咏山家苦」「記農夫語」「山畚」등이 그러한 것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長篇이어서 統一的인 構成이나 緊張의 維持가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現實 感覺의 過多한 露出로 主題가 앞선 작품이 되고 있다. 妙奧를 追求하던 그의 理想과도 물론 먼 거리에 있다 完全한 景만 描寫하고 情이 없는 詩는 妙한 韻文은 될지언정 좋은 詩라고는 할 수 없다. 이 詩에서도 그는 자신의 낡은 經驗世界를 사실로 叙述하고 있을뿐, 새로운 內面世界를 寫出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어 詩를 하게 된 그의 詩的 動機를 理解함이 없이 그의 詩에 接近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2) 自己 實現

實踐的인 儒敎理念으로 武裝된 梅月堂의 體質에서 보면, 그는 모름지기 經術으로써 明君을 輔佐해야만 했고 文章으로 經國의 大業에 이바지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몸을 맡긴 곳은 自然이요 禪門이었으며 거기 익힌 文章은 詩를 일삼는데 지나지 않았다. 禪門은 異端이요 詩作은 한갓 餘技로만 置簿하던 당시 社會의 風土에서 보면, 그가 行한 禪門에의 投跡이나 詩作에의 沈潛과 같은 것은 이미 당시 社會의 典範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行跡이 怪奇하다든가 그의 詩作이 戲畫的이라는 譏評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 지도 모른다. 그가 읊조린 아래의 詩句는

自愧學儒術(儒術 배운것 스스로 부끄러워함은)
文章多親身(文章이 이몸을 하도 그르쳤음이라)²¹⁾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자신의 處地를 잘 解明하고 있는 것이다. 儒家의 合理主義로 이러한 梅月堂의 處地를 가장 잘 辨明해 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人見其形骸 遽指爲輕躁 狎侮肆罵 不以爲忌 噫 此其人之所以爲樂 而人方落其制內 迺更校其得失 豈不爲大可笑哉²²⁾

사람들은 그 모양만 보고는 경망하고 조급하다고 지목하고서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함부로 욕하지마는, 그러나 오히려 梅月堂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樂으로 삼았던 것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梅月堂의 僞裝(계획)도 모르고서 도리어 그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으운 일이냐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梅月堂에게 있어서의 詩의 의미는, 詩를 하는 行爲 그 자체가 중요할 것이

21) 卷一, 「述古十首」第一

22) 李紆, 梅月堂集序

며, 좋은 詩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은 만 문체에 속하는 것이다. 詩가 없으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無詩語未能”)²³⁾ 그는 그에 관한 모든 것도 아울러 詩로써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精神的 價値(spiritual value)를 詩로써 實現할 수 있었던 보기 드문 詩인이 된 것이다. 그의 生卒이나 學問, 處世, 思想은 물론이요 詩作 自體에 대해서도 詩로써 말한 것이 그의 詩世界다. 이와 같이 詩를 통하여 自己 實現을 이룩한 그는 그의 答답한 一生의 歷程부터 詩로써 말하고 있다.

여덟 달만에 남의 말을 알아들었고	八朔解他語
세 돌이 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었네	三朞能綴文
비와 꽃을 읊어서 句를 얻었고	而花吟得句
소리와 눈물을 손으로 만져 알았네	聲淚手摩分
높은 정승이 집안에 드나들었고	上相臨庭宇
여러 宗派에서 古典 書冊 선사하였네	諸宗貺典墳
이 다음 벼슬 길에 ²⁴⁾ 나아갈 때엔	期余就仕日
經學으로 밝은 임금 도우려 했네	徑術佐明君 ²⁵⁾

이 詩는 梅月堂이 自述한 上柳襄陽陳情書의 內容과 一致하고 있다. 生後 8월에 글을 알았던 일이나, 3歲에 이미 글을 지을 줄 알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온 사실이거나 “雨花吟得句”는 “春而新幕氣運開”와 “老木開花心不老”에 얽힌 作詩譚을 指稱한 것이다. 前者는 그가 세살 되던 해에 外祖가 淸字를 “春”字로 하여 作句를 해 보라고 하였을 때 처음으로 지어보인 것이며, 後者는 政丞 許稠가 집으로 찾아와 “老”字를 넣어서 글을 지어 보라고 하였을 때 作句한 것이다. 그는 또 같은 詩에서

어린 아이 宮闕에 달려 갔더니	少小越金殿
세종께서 특별히 비단을 내리셨네	英陵賜錦袍
知申事가 불러서 무릎에 올려 놓고	知申呼上膝
內侍는 글 써라 졸라대었다	中使勸揮毫
임을 모아 모두들 똑똑하다 이르고	鏡道眞英物
뛰어난 文才 났다고 서로 보려 야단이라	爭瞻出鳳毛
어찌 알았으랴 집안이 기울어	焉知家事替
野人으로 속밭에서 늙을 줄이야	零落老蓬蒿 ²⁶⁾

이 詩 역시 上柳襄陽陳情書에서 自述한 內容과도 一致하는 것이다.²⁶⁾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23) 卷十四, 「夜吟」

24) 卷十四, 「叙悶六首」 第三

25) 卷十四, 「叙悶六首」 第二

26) 英廟聞而召于代言司 知申事朴以昌壁旨問虛實能否 知申事抱于膝上呼名曰 汝能作句乎 僕便應曰 來時襪祿金時習 又指壁畫山水圖曰 汝又可作 僕即應曰 小亭舟宅何人在 如此 作文作詩不少 即入啓傳旨曰 欲親引見 恐駭人聽 宜還 投家親船昨教養 至勤 待年長學業成就 將大用 賜物還家

神童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세종이 承政院에 불러 놓고 知申事(都承旨) 朴以昌에게 시켜 그 事實 與否를 시험해 보게 하였는 바, 知申事가 무릎에 안고 이름을 부르면서 ‘너 글 지을 줄 아느냐’ 하였더니 문득 “來時襪襪金時習”이라 대답하였고 또 벽에 걸린 山水圖를 가리키며 물었더니 “水亭舟宅何人在”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실을 아뢰었더니 世宗은, 적절 만나 보고 싶지만 世人의耳目이 두려우니 집에 들어가 家親의 가르침을 받아 부지런히 힘 쓰면 後日 學業이 成就되는 때를 기다려 크게 쓰겠다고 하시고는 下賜品까지 주셨다.

다섯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神童 金時習이 後日 家勢가 기울어 한갓 野人으로 시들게 된 自身の 어처구니 없는 一生을 回顧한 노래다. 그는 또 같은 詩에서

13세에 어머니 잃어	失母十三歲
외할머니 데려가서 길러주셨네	提携鞠外婆
얼마 안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未幾歸窀穸
生業은 一時에 비참하게 되었지요	生業轉憊擢
높은 벼슬 같은 것 마음에 없고	簪笏纓情少
山林間에 노니는 것 좋아졌다오	雲林着意多
오로지 생각은 세상 일 잊는 것	唯事忘世事
내 멋대로 산속에 숨어 살겠소	恣意臥山阿 ²⁷⁾

라 하였는데 여기서 보여준 人間 境涯는 上柳襄陽陳情書의 다음 記錄과 合致되고 있다.²⁸⁾

13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外祖母에게가 자랐는데, 外祖母는 의로운 外甥을 이데처럼 사랑하였읍니다 母親喪을 당했을 때는 農莊으로 데려가 서울엔 보내지 않았읍니다 守墳三年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外祖母도 또 세상을 떠났읍니다. 홀아비가 된 아버지는 身恙으로 家事를 돌볼 수 없어 繼母를 맞이했읍니다. …이미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 뒤떨어져 갈 즈음, 世宗과 文宗이 잇달아 昇遐하시고 개조께서 즉위한 초년에는 옛 친구와 巨木이 모두 他界하였으며 異敎인 佛敎가 크게 일어나고 斯文은 萎縮되었읍니다 뜻을 둘 곳이 없어 마침내 縑流들과 어울려 山水로 노닐었읍니다

15(13)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外家에 데려가 져야만 했던 그는 거기서도 安住할 티절을 잃게 되자²⁹⁾ 原初의 時習의 모습은 이때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했으며 세상을 보는 그의 炯眼은 점차 健康을 잃어 가고 있었다. 특히 丙子之難(端宗遜位事件)으로 옛 親舊와 巨木들이 일시에 쓰러지게 되자 그는 世俗에서 몸을 거두어 縑流들과 짝하여 山水로 노닐게 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26歲에 回顧한 右遊關西錄後志의

一日忽遇感慨之事 以謂男兒生斯世 道可行 則處身亂倫恥也 如不可行 獨善其身可也 欲泛泛於物外 … 一夕忽悟 若染縑 爲山人 則可以塞願 遂向松都……

27) 卷十四, 「叙閏六首」 第四

28) 至十五歲 慈母見背 鞠於外公婆 公婆以獨外甥 愛而育猶子焉 及丁母憂 牽于農莊 不還京都 守墳三年 未及終制 而公婆又捐世矣……(以下略)

29) 13세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은 上柳襄陽陳情書에는 15세로 되어 있어 시로 맞지 않다 그리고 外公婆를 外叔母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李在秀氏의 韓國小說研究 등) 外公婆는 外祖父母를 가리키는 것이다

와 栗谷의 本傳에 있는

景泰年間 英陵顯陵 相繼而斃 魯山以三年遜位 於是時習 年方二十一 讀書于三角山中 人有自京城來者 時習閉戶不出者三日 乃大哭 盡焚其書 發狂 陷于溷廁而逃之 托跡緇門……

과도 相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비록 禪門에 依托하기는 하였지만 佛子의 자격으로 出世하는 것이 싫어서 世祖가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³⁰⁾ 이것은 31세 되던 해 金鰲山에 山室을 卜築하고 여기서 終世하려 할 즈음 圓覺寺 落成會에 參席하라는 世祖의 부름을 받고 上京했다가, 世祖로부터 圓覺寺에 남아 있으라는 命을 받았으나 不服하고 金鰲山으로 되돌아 간 事實과도 一脈 相通하는 것이다. 緇流들과 어울려 山水에 몸을 맡기고서도, 그러나 佛僧의 자격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生涯의 대부분을 山寺에서 보내었지마는 불교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특히 그는 앞에서 보인 그의 述懷에서, 異敎가 크게 興起하는 대신 斯文이 위축됨에 따라 그의 뜻이 荒涼해져서 緇流들과 작히여 山水에서 노닐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看過할 수 없는 사실은 스스로 불교를 異敎라고 단정하면서도 異敎가 興起하고 斯文이 위축된 乖亂 속에서 어떻게 禪門에 投跡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生涯의 대부분을 山寺에서 보내고서도 佛敎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論理的 乖離를 어떻게 說明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내가에서 악기 터며 즐겨 하는데	我在考槃側
고사리는 북산에서 살찌 가터라	薜薇肥北山
무슨 일로 긴 옷 입은 저 늙은이는	何事長裾翁
한 세상에 빈 말을 그리 많이 하였나	一世多空言
斯文이 쓸쓸해진 지 이미 오래고	斯文已寂寥
텅 빈 것 안 지가 몇 해이던가	曠矣知幾年
누가 천년 뒤 오늘에 있어	誰人千載下
聖學의 연원을 이을 수 있을까	似續洙泗傳 ³¹⁾

이와 같이 斯文이 荒涼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그는 이미 유유이 禪門의 境界에서 自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詩가 바로 그 모습이다.

반평생을 江海에서 사니 벗들도 많네만	半生江海友如雲
오늘 서로 만나니 道 맛이 참갈구나	今日相逢道味眞
지팡이 짚고 홀로 가는데 물속에 그림자 지고	飛錫獨行潭底影
평상을 펼쳐 놓고 나무 밑에 몸을 쉬네	敷床數息樹邊身
4천권의 佛經·眞言 가슴 속에 남아 있어	四千經偈留胸臆
百二의 산과 내는 한 티끌로 변했네	百二山河轉一塵

30) 人以我爲喜釋 然不欲以異道顯世 故光廟傳旨 屢召而皆不就 處身益以疎曠

31) 卷八「和淵明飲酒詩二十首」其二

氣味가 쌀쌀하나 얘기할 벗이 없고
차 끓이는 남비 물만 가늘게 소리내네

氣味蕭然無與話
煮茶鑪水細齟齬³²⁾

스스로 山林處士를 自處한 그가 迹佛을 敢行하여 禪의 세계에 心醉한 것은 일단 그의 處世에 있어 二律背反的인 自己 矛盾이 아닐 수 없다. 退溪가 “索隱行怪”로 貶한 것이라든지 李籽의 “行儒而迹佛”이나 栗谷이 “心儒跡佛”이라고 한 것은 모두 이런데서 緣由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뭏든 이에 대한 解明이 없이 梅月堂의 爲人을 理解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한 自身の 辨明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³³⁾

나는 본디 佛老와 같은 異端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縉流들과 짝하게 된 것은, 縉流란 원래 物外人이요 山水도 物外境이라 이 몸이 物外에 놀고 싶어서 縉流와 더불어 山水間을 노닐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士君子가 세상에 處함에 있어서는, 뜻을 얻으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時宜를 얻지 못하면 鄉里로 물러가 隱忍自重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이다. 이에서 보면 그는 士君子가 갖추어야 할 基本姿勢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古今君子隱顯論”에서 聖賢의 進退는 義의 當否와 時의 可不可 如何에 달렸다고 說破하고 그 例로서 伊尹과 傅說 그리고 姜太公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 때를 기다려 顯達한 이들이다. 隱遁해 있을 때에도 潔身亂倫에 이르지 않았으며 顯達하였을 때에도 市名沽利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梅月堂은 窮八十 姜太公이 達八十 살다 간 그러한 경지에다까지 이르지도 못했다. 現實의 壁을 破壞하기에는 너무 英敏하였다. 그는 쉽사리 敗北를 宣言하고 山水에디 몸을 맡겼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禪門에 몸을 던지고 山水로 放浪하게 된 그의 軌跡을 그 出處에서부터 追跡해 볼 필요를 느낀다.

朝鮮初期 身分秩序의 再編成 過程에 있어 地方 土豪들의 進出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梅月堂의 家系는 여기에서도 除外된 것이 틀림없다. 아버지 日省이 蔭仕로 武職이라든 받은 것을 보면, 上代에서부터 閑微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으나(世系圖의 內容이 自述한 上柳襄陽陳情書의 그것과 一致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確言하기 어렵다) 이 무렵부터 家勢가 고단해지기 시작한 것은 事實인 것 같다. 서울의 伴宮 옆에서 태어난 그는 그가 돌아갈 鄉里가 없었다. 이는 그의 進退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실로 浮刻되어야 할 것 같다. 그가 내 벨고 간 그 많은 詩作 속에서 歸鄉의 노래를 흔하게 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도 여기에서 確認할 수 있다.

破綻한 自己 모습을 克服할 모든 것을 拋棄한 그가 일단 그의 生活方便으로 선택한 것이 縉門이었으며 이것이 곧 그의 人間境涯의 方向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게 된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縉門에의 投跡은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禪門에 耽惑케 하

32) 卷三, 「贈峻上人」二十首

33) 僕素不好佛老異端 與覺者伴 覺本物外人也 山水亦物外境也 欲身遊物外 與覺者伴 而遊於山水也(上柳自漢書)

였으며 이에 따라 儒家의 現實主義・合理主義로 佛敎를 理解하고 解釋하려는 自己 合理化의 변명을 企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모든 意識의 消滅과 還生을 통한 報復을 要諦로 하는 佛家의 세계를 儒家의 現實主義・合理主義로 해석함으로써 現實과의 妥協을 企圖한 여기에서 마침내 그 思想體系의 乖離를 볼 수 있다.³⁴⁾ 地上의 障壁 앞에 쉽게 敗北를 宣言하고, 屈折된 自己 모습을 스스로 克服하지 못하는 破綻한 金時習에게 있어서는, 一切의 葛藤과 紛爭을 싫어하는 釋老의 세계야말로 그만이 惠澤 받을 수 있는 歸依處가 될 수도 있었을는지 모른다.

끝내 自己 合理化를 일삼은 그의 僞裝은 그러나 다음 詩句에서도 餘地 없이 綻露되고 만다.

백년 동안 글 하느라 긴 길을 쪼다녔지만	百年書劍走長途
그저 얻은 閑名만이 五湖에 가득하다	剩得閑名滿五湖
펼경은 이 몸도 한바탕 꿈일 것이니	畢竟此身俱是夢
한평생 일 없기는 나 같은 이 없으리라	一生無事莫如吾 ³⁵⁾

그의 宿命論的 人生觀을 노래한 것이 이것이다. 여기에서, 儒家의 現實主義도 佛敎에 대한 現實主義의 解釋도 모두 破綻에 이르고 있으며 오직 의식의 壞滅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그의 思想的 乖離는 論說과 詩의 세계가 또한 그러하다. 自然發生的으로 情緒의 表出을 極大化한 詩의 세계와, 意識的으로 自己 合理化를 企圖한 論說文의 세계가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지 모른다.

그의 好佛에 대해서도 文集이나 詩集의 到處에서 流露되고 있어 일일이 摘記할 수 없으나 李紆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⁶⁾

於釋典亦洞徹無礙 發輝精微 一日過東都 剴然大悟 曰禪理頗深 思量五載 乃得透開 如吾道

이에 대해서는 栗谷도 梅月堂의 本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至如禪道二家 亦見大意 深究病源 而喜作禪語 發闡玄微 穎脫無滯碍 雖老釋名號於其學者 莫敢抗其鋒이라 하여 奧妙한 禪의 세계를 發闡함으로써 穎脫拔群하여 막히는 데가 없었던 그 禪의 경지를 認定하고 있다. 直指人心하는 禪의 세계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인 그의 말을 들어 보면 浮屠는 治世에는 不可하지만 去慾에는 可하다고 했다.³⁷⁾ 그러나 治世에 不當한 浮屠를 現實的으로 肯定한다는 것은 浮屠를 現實主義的으로 解釋하려는 苟且한 自己 辨明 그 이상의

34) 林炎澤教授는 「現實主義의 世界觀과 金鰲新話」(國文學研究 第13輯 p 20)에서 이러한 그의 思想의 乖離를 타락한 불교의 改革論으로 보았고 이것은 그의 民本 愛民思想과 一致하는 것이라 하였다.

35) 卷一「縱筆四首」第二

36) 序文

37) 卷二十三「雜說」參照

것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因果論的 輪廻說이나 懺悔說을 拒否하면서도 山門의 깊은 곳아
앉아 佛經을 閱讀하던 自身の 모습은 결코 감출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한 줌 짙은 다 타가고 가을 밤은 깊었는데	一炷香殘秋夜深
귀뚜라미와 달빛이 禪의 마음 흐드네	蛩聲月色攪禪心
백년의 인생 살이 헤아릴 수 없고	百年人事不可計
三世의 망령된 인연 찾을 곳이 없어라	三世妄緣無處尋
뜰 안에 나무는 바람 이슬 근심하고	庭樹正愁風露勃
신새는 골 안에 구름 든다 지저귀네	山禽似話洞雲侵
창포 방석 종이 장막은 물보다도 더 맑은데	蒲團紙帳清於水
한가히 佛經 들고古今을 훑어 보네	閑展禪經閱古今 ³⁸⁾

禪門의 眞情을 사실로 傳해 주는 것 같다. 자신의 辨明을 더욱 困惑케 하는 現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虛構的인 傳奇的 世界에서는 또 다른 次元에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南炎浮洲志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³⁹⁾

周公과 孔子의 가르침은 正道로써 邪道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釋迦의 법은 사도로써 설문하여 사도
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주공과 공자는 正道로써 邪道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올밭랐고,
석가는 邪道로써 邪道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허황했습니다. 주공과 공자의 말씀은 올밭랐으
므로 군자가 따르기 쉬웠으며, 석가의 말씀은 허황했으므로 小人이 믿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모두 군자와 소인에게 마침내 바른 도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결
코 세상을 疑惑시키고 백성을 속여서 邪道로써 그릇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하여 그는 浮屠를 現實的으로 肯定・受容하기 위하여 “以邪去邪” 즉 “사도로써 사도를
물리치는 것”을, 儒家의 正道로서 邪道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次元에 歸着시키고 있다. 그
런데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그의 作家의 力量이다. 그는 이 作品을 통하여 당시
의 社會的 事實로서의 佛教와 作家가 創造한 佛教를 함께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作
品 속에 提示된 事實이 社會的 慣習으로서의 典型的 事實과 전혀 共通因數가 발견되지 않
는다면, 이는 한갓 戲畫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반면에, 作品에서 提示된 事實이
社會的 事實의 單純 叙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社會的 事實의 實錄에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作品에서 提示한 佛教는 당시 社會의 典型으로서의 事實이기도 하
거니와, 한편으로는, 事實과 虛構의 距離 때문에 屈折 變異된 創造의 事實이기도 하다. 佛
教를 邪道로 規定한 것은, 事實과 虛構 사이에서 發見되는 共通의 現象이며, 窮極的으로
佛教의 教示의 機能을 認定한 것은 作品에서 形象化된 屈折된 事實이다. 이에서 볼 때 이
作品이 비록 神奇로 가득찬 傳奇的 틀을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作家 意識에 대해서는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作家 意識은 詩의 世界에서도 事實로 드러 난다.

38) 卷三「夜坐看經」

39) 周孔之教 以正去邪 瞿雲之法 設邪去邪 以正去邪 故其言正直 以邪去邪 故其言荒誕 正直故君子易
從 荒誕故小人易信 其極致則皆使君子小人 終歸於正理 未嘗惑世誣民 以異道誤之也

붙들어 잡아도 可望 없는 일	扶持無復望
聖學이 이렇게 황당할 줄이야	聖學太荒唐
‘이슬’ ‘달’ 즐겨 쓰는 詩句도 淺薄하고	月露詞章淺
찌꺼기 같은 註釋도 길기만 하네	秕糠訓註長
나도 능히 科擧에 合格할 수 있으리니	惟能擧科第
賢良으로 薦擧할 필요도 없소	不必學賢良
漆雕開의 품은 뜻 그 누가 알아주리	誰識漆雕意
구멍은 둥근데 자루만 공연히 모저 있구나	鑿圓空柄方 ⁴⁰⁾

天荒을 깨치는 듯한 逆說이다. 儒家의 本然의 姿勢를 스스로 拋棄하는 究境에까지 치다르면서도 그러나 失意와 破綻과 期待와 未練 그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作家의 苦惱에 찬 모습을 읽을 수 있다.

“期余就仕日 經術佐明君⁴¹⁾” 하겠다던 어린 시절의 꿈을 되찾아, 39세에 오랜 放浪을 清算하고 다시 還俗하여 安息處를 求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내 그에게는 때가 오지 않았다.

조상 제사 못받드는 것 언젠가 恨스러워	可恨顯宗祀
본래 기약한 뜻 저버릴까 걱정했죠	關心負素期
세상 맑아지기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河清俟望久
임금님의 부르심이 오지 않았소	鶴詔下來遲
몸과 세상 어그러짐이 이렇게 심한데	身世乖違甚
세월은 덧없이 흘러만 갔소이다	年光荏苒移
하늘이 만약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天公如憫我
반드시 否塞(비색)한 運命 기을 때가 있으리라	必有否傾時 ⁴²⁾

마지막으로 걸어 본 그의 期待다. 이는 上柳襄陽陳情書의 다음 記錄을 연상케 한다.

今聖上登極 用賢從諫 冀欲筮仕 將仕祭先 屢見身世相違 如圓鑿方柄 舊知已盡 新知未貫 孰知余之素志 故復放浪形骸於山水間矣

還俗하자 어려운 生計를 이어가기 위하여 땅을 빌어 농사를 지으면서 安住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自安을 얻지 못한 것 같다. 結婚도 다시 하고 벼슬도 해 볼 작정이었던 모양이나 때는 끝내 그를 찾아주지 않았으며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이내마져 죽고 말았다.⁴³⁾ 모든 것이 끝난 이매(49歲), 그는 六經子史를 읽고 關東으로 遊覽의 길에 올라 농사나 짓고 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還俗에서 失敗한 晩年의 失意는 倨傲하던 壯歲의 그것과는 對照의이었다.

40) 卷一「述古十首」第五

41) 前出 卷十四「叙悶」第三

42) 同上 第六

43) 李珣, 金時習傳